

---

# 세계 석유시장 모니터링

---

2016. 12. 19

에너지경제연구원  
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



## □ 주요 변수

- 향후(2017년)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 OPEC의 감산 이행률, 미국 셰일오일 생산 추이, 세계경제 상황과 달러화 가치 등으로 예상
  - OPEC은 11월의 감산 합의를 바탕으로 생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석유시장의 수급 균형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
  - 비OPEC 원유생산은 유가 상승과 신규 유전 가동 등으로 감소 추세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전년보다 30만b/d 증가할 것으로 전망
  - 세계 석유수요는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 증가와 겨울철 난방용 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30만b/d 증가 전망
  - 달러화 가치는 연준(Fed)의 금리 인상 등으로 강세 유지 예상
- 단기적으로 주목할 변수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
  - 사우디를 비롯한 OPEC 내 GCC 국가들 중심으로 감산을 이행하는 반면 감산이 면제된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에서는 증산이 예상
  - 유전지대 특성상 동절기에 유정 폐쇄가 곤란한 러시아는 감산 합의(30만b/d)를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

## □ 유가 전망

- 향후 유가는 수급 균형이 회복되면서 상승세를 보일 것이나 사상 최고 수준으로 누적된 석유재고와 달러화 강세로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.
  - KEEI는 두바이유 가격이 2016년 평균 \$41.23/b(4분기 \$48.00/b), 2017년 평균 \$51.68/b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함.
    - \* 2016년 평균 가격을 종전 전망치 대비 \$0.23/b 상향 조정, 2017년 전망치는 유지
- 해외 주요 기관들은 2017년 국제유가를 2016년에 비해 \$7~12/b 높은 수준으로 전망
  - 2017년 연평균 유가 전망은 브렌트유 기준으로 EIA가 전월 전망치에 비해 \$0.75/b, IHS Energy가 전월 전망치에 비해 \$0.16/b를 각각 상향 조정함.

### < 해외 주요 기관의 원유가 전망 >

(단위: \$/b)

| 전망기관 <sup>1)</sup>       | 기준유종 | 2016  |       | 2017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전월대비<br>조정 <sup>2)</su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4/4   | 연간    | 1/4   | 2/4   | 3/4   | 4/4   | 연간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EIA<br>(16.12.6)         | 브렌트  | 48.11 | 43.46 | 50.00 | 50.00 | 52.00 | 54.65 | 51.66 | +0.75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WTI  | 48.18 | 43.07 | 49.00 | 49.00 | 51.00 | 53.65 | 50.66 | +0.72                    |
| IHS Energy<br>(16.11.11) | 브렌트  | 49.58 | 43.67 | 49.00 | 52.02 | 53.66 | 53.31 | 52.00 | +0.16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WTI  | 49.06 | 43.13 | 48.04 | 50.91 | 52.46 | 51.95 | 50.84 | +0.19                    |
| EIU(16.12)               | 브렌트  | 53.00 | 44.78 | 56.50 | 54.50 | 56.00 | 59.00 | 56.50 | 0.00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WTI  | 51.94 | 43.88 | 55.37 | 53.41 | 54.32 | 57.23 | 55.08 | 0.00                     |

주: 1) ( )안은 전망 시점, 2) 2017년 연평균 가격에 대한 조정

# 1. 이슈 분석

## □ OPEC의 11월 총회 결과와 석유시장 영향 전망

- ▷ OPEC 총회와 OPEC-비OPEC 회담을 통해 전체 산유량을 170만b/d(OPEC 114만 b/d, 비OPEC 56만b/d) 감축하기로 합의
- ▷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의 생산쿼터 면제와 역사적인 OPEC 회원국들의 행태를 고려할 때 OPEC-비OPEC 감산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
- ▷ 감산 합의가 엄격히 이행될 경우 공급과잉이 2017년 상반기에 해소될 것이나 이행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어 유가 상승세도 제한적일 전망

○ OPEC은 11월 30일 171차 정기총회에서 OPEC 원유생산량을 32.5백만b/d로 감축하는데 최종 합의함.

- 이는 10월 원유생산량 33.64백만b/d보다 114만b/d 감축하는 것이며 당초 완화된 합의를 예상한 시장 전망을 완전히 벗어나 9월 합의에서 제시된 범위(32.5~33.0백만b/d) 중 가장 강력한 수준에 합의함.
  - 회원국별 감산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가 49만b/d이며, 이라크가 21만b/d, UAE가 14만b/d, 쿠웨이트가 13만b/d, 베네수엘라 9.5만b/d 등임.
  - 리비아와 나이지리아, 인도네시아는 산유량 통제 대상에서 면제되었고, 이란은 10월보다 9만b/d 많은 3.8백만b/d까지 증산이 허용됨.
- \* 인도네시아는 감산에 반발해 회원국 자격 중지를 요청, 받아들여짐.

### < OPEC 원유생산쿼터 합의 내용 >

(단위: 천b/d)

|         | 기준 생산* | 생산쿼터   | 차이(B-A)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알제리     | 1,089  | 1,039  | -50     |
| 앙골라     | 1,751  | 1,673  | -78     |
| 에콰도르    | 548    | 522    | -26     |
| 가봉      | 202    | 193    | -9      |
| 인도네시아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 |
| 이란      | 3,707  | 3,797  | 90      |
| 이라크     | 4,561  | 4,351  | -210    |
| 쿠웨이트    | 2,838  | 2,707  | -131    |
| 리비아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 |
| 나이지리아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 |
| 카타르     | 648    | 618    | -30     |
| 사우디아라비아 | 10,544 | 10,058 | -486    |
| UAE     | 3,013  | 2,874  | -139    |
| 베네수엘라   | 2,067  | 1,972  | -95     |

주: \* 기준 생산량은 10월 원유생산량이며, 앙골라는 9월 원유생산량을 기준으로 함.

자료: OPEC, Monthly Oil Market Report, October 2016.

- 금번 합의된 생산쿼터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적용되며 시장 상황을 점검한 후 6월 정기총회에서 재논의 예정임.
- 국제 원유가는 브렌트 최근월물 기준으로 OPEC 총회 직후 3거래일 동안 8.08달러(17%) 상승해 12월 2일 \$54.46/b을 기록함.
- 러시아 등 일부 비OPEC 산유국들은 OPEC의 최종 감산 합의에 따라 감산 공조에 참여함.
  - 12월 10일 오스트리아 OPEC 사무국에서 개최된 OPEC-비OPEC 장관급 회담에는 11개 비OPEC 산유국들이 참석함.
    - \* 러시아 외 10개(아제르바이잔, 바레인, 브루나이, 적도기니, 카자흐스탄, 말레이시아, 멕시코, 오만, 수단, 남수단) 비OPEC 산유국들이 참석함.
  - 비OPEC 산유국들은 내년 1~6월까지 자발적 감축과 자연 감소분 등을 고려해 55.8만b/d의 산유량 감축에 최종 합의함.
    - \* 러시아의 감축량이 30만b/d로 최대이며, 오만은 4.5만b/d, 카자흐스탄은 2만b/d 감축 예정임.
- OPEC-비OPEC의 감산 합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세계 석유공급 과잉은 예상보다 빠른 내년 상반기부터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.
  - IEA가 전망한 대OPEC 원유수요(세계 석유수요-비OPEC 공급-OPEC NGLs) 고려시 내년 상반기부터 석유수급은 공급부족으로의 전환이 예측됨.
    - \* 상반기 평균 대OPEC 원유수요는 33.0백만b/d로 OPEC의 1~6월 생산쿼터가 엄격히 준수될 경우 50만b/d 공급부족으로 전환될 것 수 있음.
  - OPEC은 내년 상반기 대OPEC 원유수요를 31.9백만b/d로 예측함에 따라 60만b/d 수준의 공급과잉이 전망됨.

**< 2017년 대OPEC 원유수요 전망에 따른 공급과잉 전망 >**

(단위: 백만b/d)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2017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1/4  | 2/4  | 3/4  | 4/4  | 연간   |
| OPEC 생산쿼터(A) |            | 32.5 | 32.5 | -    | -    | -    |
| 대OPEC 원유수요   | IEA (B)    | 33.0 | 33.0 | 33.5 | 33.8 | 33.3 |
|              | OPEC (C)   | 31.6 | 32.1 | 33.8 | 33.2 | 32.7 |
| 재고증감         | IEA (A-B)  | -0.5 | -0.5 | -    | -    | -    |
|              | OPEC (A-C) | 0.9  | 0.4  | -    | -    | -    |

자료: IEA, Oil Market Report, November 2016; OPEC, Monthly Oil Market Report, November 2016.

- 여기에 비OPEC 감산분(55.8만b/d)까지 고려한다면 OPEC 전망치 상에서도 내년 상반기 공급과잉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.

## □ 평가

- 하지만 생산쿼터 통제가 배제된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의 생산차질 회복 가능성을 감안할 때 OPEC 전체 실질 원유생산은 생산쿼터를 상회할 전망이다.
  - 장기적 내전으로 원유생산 대부분이 중단된 리비아는 최근 정세불안 완화로 산유량이 10월 53만b/d로 회복되고 11월 중에는 60만b/d로 증가했으며, 연말까지 90만b/d, 내년 1.1백만b/d로의 증산을 추진 중임.
  - 나이지리아의 원유생산은 무장세력의 석유시설 공격으로 8월 1.42백만b/d까지 감소했으나 10월에 1.63백만b/d로 증가함.
    - \* 나이지리아 석유부 장관은 12월 5일 인도 Petrotech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자국 원유생산이 1.9백만b/d까지 회복되었다고 밝히기도 함.
  - 이에 따라 그 밖의 회원국들이 합의안을 준수하더라도 OPEC의 실질적인 원유생산은 생산쿼터를 최소 50만b/d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임.
- 또한 OPEC 회원국들의 경제상황 고려 시 생산쿼터가 엄격하게 준수될 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됨.
  - OPEC의 과거 생산쿼터와 실제 원유생산량 비교 시 생산쿼터를 준수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.

### < OPEC의 기간별 비준수율(실질생산량/생산쿼터-1) 추이 >

(단위: %)

|       | 전체   | '86.1~<br>'90.7 | '91.4~<br>'99.3 | '99.4~<br>'00.11 | '00.12~<br>'02.12 | '03.1~<br>'08.9 | '08.10~<br>'10.12 | '11.1~<br>'12.12 |
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OPEC  | 4.9  | 11.6            | 3.9             | 4.7              | 4.9               | 3.1             | 6.8               | 6.6              |
| 사우디   | 3.7  | 8.9             | 2.3             | 2.7              | 4.5               | 4.8             | 2.4               | 16.7             |
| 이란    | 3.2  | -5.2            | 3.3             | 19.7             | 4.9               | 1.7             | 10.7              | 8.7              |
| 이라크   | 8.2  | 14.9            | 1.4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
| UAE   | 9.7  | 68.8            | 2.2             | 2.4              | 3.4               | 4.1             | 2.6               | 12.5             |
| 쿠웨이트  | 10.4 | 46.1            | 5.6             | 2.4              | 4.8               | 8.3             | 3.3               | 14.0             |
| 카타르   | 10.3 | 9.0             | 19.2            | 5.6              | 11.0              | 8.3             | 1.1               | 1.0              |
| 리비아   | 2.2  | 4.7             | 2.3             | 8.5              | 8.6               | 8.1             | 5.1               | -68.5            |
| 베네수엘라 | 5.2  | 4.1             | 12.9            | 0.5              | -0.9              | -7.7            | 27.8              | 24.4             |
| 나이지리아 | 7.2  | 9.4             | 7.3             | 1.0              | 6.6               | 2.7             | 12.2              | 27.7             |
| 알제리   | 10.3 | 3.4             | 2.1             | 1.2              | 24.4              | 30.2            | 1.5               | -1.6             |

자료: IEA, Monthly Oil Data Service;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13-15, 2013

- 특히, 감산 규모가 큰 사우디, 이라크, 쿠웨이트, 베네수엘라 등은 저유가로 인한 재정적자와 정세불안으로 산유량 확대를 통한 재정확보가 절실함.
  - \* IHS Energy에 따르면 주요 회원국들의 올해 재정균형 유가는 사우디가 \$80/b, 이라크와 UAE, 쿠웨이트가 \$60/b, 베네수엘라 \$110/b 수준임.
- 따라서 최근 유가 회복세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재정수입 손실 완화를 위

해 이들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생산쿼터 위반정도가 확대될 수 있음.

- \* 저유가 시기(1986.1월 ~ 1990.7월, 1999.4월 ~ 2002.12월)에는 OPEC 비준수율은 4%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.

#### < OPEC 회원국별 재정균형 유가(브렌트유 기준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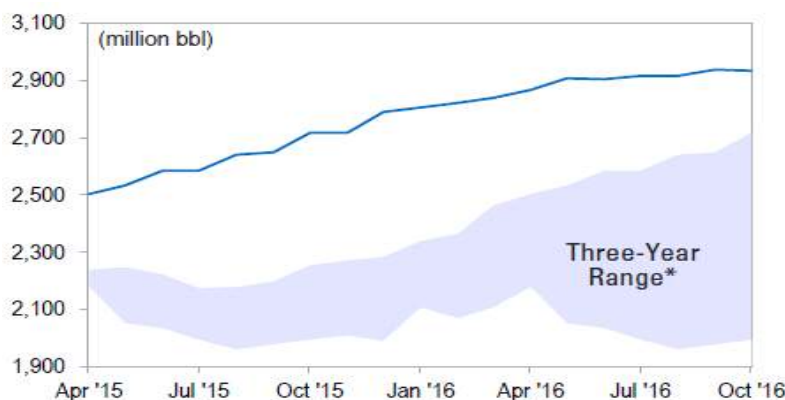
(단위: \$/b)

| 국명      | 2016년 | 2017년 | 국명    | 2016년 | 2017년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사우디아라비아 | 82    | 86    | 카타르   | 51    | 58    |
| 이란      | 99    | 93    | 리비아   | 112   | 104   |
| 이라크     | 60    | 65    | 베네수엘라 | 110   | 182   |
| UAE     | 63    | 67    | 나이지리아 | 95    | 109   |
| 쿠웨이트    | 57    | 61    | 알제리   | 80    | 72    |

자료: IHS Energy, OPEC Price Thresholds, October 2016

- 러시아, 카자흐스탄, 바레인을 제외한 OPEC과의 감산 공조에 참여한 비 OPEC 산유국들 모두 생산 감소세에 있어 실질적인 감산 효과는 제한적임.
- \* 러시아의 감산 준수 여부도 불확실한 가운데 OPEC이 생산쿼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OPEC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임.
- OPEC의 생산쿼터 준수 가능성이 회의적임에 따라 2017년 상반기에 석유공급 과잉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워 유가 상승세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.
-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의 감산 면제로 인한 증산 가능성 고려 시 OPEC의 원유생산은 33백만b/d를 상회할 수 있으며 그 외 OPEC과 비OPEC 산유국들의 비준수 가능성 감안 시 그 이상으로 산유량이 확대될 것임.
-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예상 밖의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으면 공급 과잉의 완전 해소가 어려워 최근 급등한 국제 유가가 추가 상승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.
- \* 세계 원유재고의 사상 최고치 경신으로 유가 하방압력도 높은 상황임.

#### < 세계 원유재고 추이 >



자료: Energy Intelligence, Oil Market Intelligence, November 201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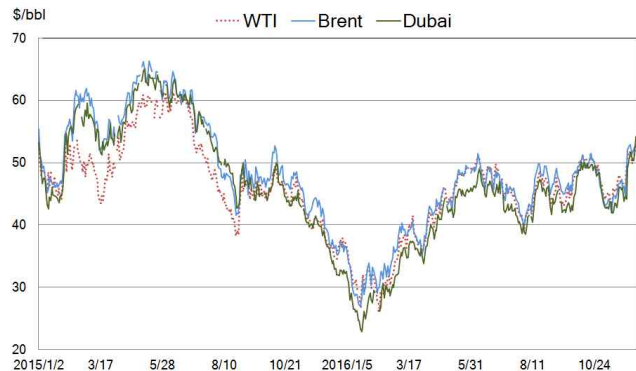
## 2. 국제유가 동향 및 변동 요인

### < 국제 원유가격 추이 (\$/b) >

| 유종    | 2015  | 2016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|       | 1/4   | 2/4   | 3/4   | 4/4   | 12월   | 평균    |
| 두바이   | 50.69 | 30.51 | 43.23 | 43.18 | 47.23 | 51.30 | 40.85 |
| Brent | 52.15 | 33.94 | 45.65 | 45.80 | 48.08 | 52.42 | 43.18 |
| WTI   | 48.64 | 33.35 | 45.53 | 44.86 | 48.41 | 51.49 | 42.87 |

주: 12월 원유가는 12월 13일까지 반영

자료: www.petronet.co.kr, Reuters



### □ 국제유가 추이(10~12월)

- 두바이 원유가는 9월 OPEC 감산 잠정합의로 \$50.03/b(10월 12일)까지 상승 후 OPEC 회원국별 감산 배분 난항과 달러화 강세로 \$41.95/b(11월 14일)까지 하락했으나 11월말 OPEC의 최종 감산 합의로 12월 이후 \$50/b를 상회 중
- (OPEC-비OPEC 감산 합의) OPEC 총회와 OPEC-비OPEC 장관급 회담을 통해 총 1.7백만b/d의 감산에 전격 합의
  - \* OPEC은 171차 총회(11.28~30)에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을 10월 산유량보다 1.14백만b/d 적은 32.5백만b/d로 제한하는데 합의함.
  - \* 비OPEC 회원국들도 OPEC과의 회담(12.10)에서 56만b/d 감축하는데 합의함.
- (달러화 강세) 미국 대선(11월 8일)에서 트럼프(Donald Trump)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달러화 강세 가속화
  - \*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보호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지고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 수요가 증가함
  - \*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연율 3.2%로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함.
- (공급과잉 지속) 전 세계 석유공급 증가로 공급과잉 장기화 우려 증대
  - \* OPEC 공급은 감산 논의 과정 중에도 6개월 연속 빠르게 증가하며 11월 원유 생산이 전월 대비 30만b/d, 5월 대비로는 128만b/d 증가함.
  - \* 비OPEC 공급은 러시아의 증산 확대와 미국 셰일오일 감소세 진정 등으로 10월까지 2개월 동안 79만b/d 증가했으며, 11월에는 전월 대비 16만b/d 감소함.

## □ 유가 상승 요인

| 요인           | 배경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급 축소<br>가능성 | OPEC 감산 합의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OPEC, 11월 총회에서 전체 원유생산을 32.5백만b/d로 제한하는데 최종적으로 합의(11.30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비OPEC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러시아는 OPEC 감산 합의에 따라 자국의 내년 원유생산을 30만b/d 감축하겠다고 발표(11.30)</li> <li>OPEC-비OPEC 장관급 회담에서 비OPEC 공급을 56만b/d 감축하는데 합의(12.10)</li> </ul>       |
| 수요 증대<br>기대  | 세계 경제회복<br>전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MF, 10월 세계 전망에서 2016년과 2017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.1%와 3.4%로 전망해 직전(7월) 전망치 유지</li> <li>미국, 3분기 경제성장률 연율 3.2%로 시장 예상치(3.1%) 상회(11.29)</li> </ul> |

## □ 유가 하락 요인

| 요인         |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급과잉<br>지속 | 세계 공급 증가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EA는 12월 석유시장보고서(12.13)에서 11월 세계 석유 공급이 전월 대비 13만b/d 증가한 것으로 집계</li> <li>리비아 NOC 회장은 11월 중 리비아 원유생산이 60만 b/d이며 연내 90만b/d로 증대시킬 것이라 주장(12.2)</li> <li>나이지리아 석유부 장관은 자국 원유생산이 1.9백만b/d 까지 회복되었다고 발표(12.5)</li> </ul> |
|            | 석유 시추기<br>증가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국 석유시추기 수는 12월 9일까지 498기로 10주 동안 73기 증가, 1월 29일 이후 최고치 기록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달러화 강세     | 보호주의 우려와<br>미국 기준금리<br>인상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국,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(11.8)</li> <li>일본, 3분기 경제성장률 연율 1.3%로 시장 예상치(2.3%) 하회(12.8)</li> <li>유럽, 유럽중앙은행(ECB)은 기준금리를 0%로 동결(12.8)</li> <li>미국, FOMC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0.25%p 인상한 0.5~0.75%로 결정(12.14)</li> </ul>             |



### 3. 향후 전망

#### □ 주목할 변수

- 향후(2017년)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 OPEC의 감산 이행률, 미국 셰일오일 생산 추이, 세계경제 상황과 달러화 가치 등으로 예상됨.
  - OPEC은 11월의 감산 합의를 바탕으로 생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석유시장의 수급 균형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.
  - 비OPEC 원유생산은 유가 상승과 신규 유전 가동 등으로 감소 추세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전년보다 30만b/d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.
  - 세계 석유수요는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 증가와 겨울철 난방용 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30만b/d 증가가 전망됨.
    - \* 2015-16년 겨울철 이상 난동에 따른 기저효과가 2016-17년 겨울철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
  - 달러화 가치는 연준(Fed)의 금리 인상 등으로 강세 유지가 예상됨.
- 단기적으로 주목할 변수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임.
  - 사우디를 비롯한 OPEC 내 GCC 국가들 중심으로 감산을 이행하는 반면 감산이 면제된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에서는 증산이 예상됨.
  - 유전지대 특성상 동절기에 유정 폐쇄가 곤란한 러시아는 감산 합의 (30만b/d)를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
#### □ 유가 전망

- 향후 유가는 수급 균형이 회복되면서 상승세를 보일 것이나 사상 최고 수준으로 누적된 석유재고와 달러화 강세로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.
  - KEEI는 두바이유 가격이 2016년 평균 \$41.23/b(4분기 \$48.00/b), 2017년 평균 \$51.68/b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함.
    - \* 2016년 평균 가격을 종전(10월) 전망치 대비 \$0.23/b 상향 조정, 2017년 전망치는 유지
  - 그러나 산유국들의 감산 이행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거나 세계경기예 대한 침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에 유가는 추가로 변동될 수 있음.

**< 2016~17년 세계 석유 수급 밸런스 전망 >**

(단위: 백만b/d)

|       | 2016 |      | 2017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| 4/4  | 연간   | 1/4  | 2/4  | 3/4  | 4/4  | 연간   |
| 세계 수요 | 97.0 | 96.3 | 96.7 | 97.0 | 98.2 | 98.2 | 97.6 |
| 세계 공급 | 97.3 | 96.8 | 97.1 | 97.1 | 97.7 | 98.0 | 97.5 |
| 공급 과잉 | 0.3  | 0.5  | 0.4  | 0.1  | -0.5 | -0.2 | -0.1 |

자료: 에너지경제연구원 기준안

○ 해외 주요 기관들은 2017년 국제유가를 2016년에 비해 \$7~12/b 높은 수준으로 전망함.

- 2017년 연평균 유가 전망은 브렌트유 기준으로 EIA가 전월 전망치에 비해 \$0.75/b, IHS Energy가 전월 전망치에 비해 \$0.16/b를 각각 상향 조정함.

**< 해외 주요 기관의 원유가 전망 >**

(단위: \$/b)

| 전망기관 <sup>1)</sup>       | 기준유종 | 2016  |       | 2017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전월대비<br>조정 <sup>2)</su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4/4   | 연간    | 1/4   | 2/4   | 3/4   | 4/4   | 연간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EIA<br>(16.12.6)         | 브렌트  | 48.11 | 43.46 | 50.00 | 50.00 | 52.00 | 54.65 | 51.66 | +0.75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WTI  | 48.18 | 43.07 | 49.00 | 49.00 | 51.00 | 53.65 | 50.66 | +0.72                    |
| IHS Energy<br>(16.11.11) | 브렌트  | 49.58 | 43.67 | 49.00 | 52.02 | 53.66 | 53.31 | 52.00 | +0.16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WTI  | 49.06 | 43.13 | 48.04 | 50.91 | 52.46 | 51.95 | 50.84 | +0.19                    |
| EIU(16.12)               | 브렌트  | 53.00 | 44.78 | 56.50 | 54.50 | 56.00 | 59.00 | 56.50 | 0.00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WTI  | 51.94 | 43.88 | 55.37 | 53.41 | 54.32 | 57.23 | 55.08 | 0.00                     |

주: 1) ( )안은 전망 시점, 2) 2017년 평균가격에 대한 조정

## 4. 석유수급

### □ 세계 석유수요 (백만b/d)

|              | 2016년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증감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8월           | 9월           | 10월          | 전월대비        | 전년동월대비      |
| 미주           | 25.34        | 24.33        | 24.90        | 0.56        | 0.36        |
| OECD 유럽      | 14.59        | 14.31        | 14.08        | -0.23       | 0.24        |
| 아시아·오세아니아    | 7.69         | 7.77         | 7.86         | 0.09        | 0.13        |
| <b>OECD</b>  | <b>47.89</b> | <b>46.41</b> | <b>46.83</b> | <b>0.42</b> | <b>0.73</b> |
| 아시아          | 24.21        | 24.02        | 25.09        | 1.07        | 0.89        |
| 중동           | 9.53         | 9.49         | 9.29         | -0.20       | -0.13       |
| 남미           | 6.57         | 6.33         | 6.40         | 0.06        | -0.12       |
| 구소련          | 4.93         | 5.01         | 4.71         | -0.30       | 0.00        |
| 아프리카         | 4.51         | 4.50         | 4.60         | 0.10        | 0.20        |
| <b>비OECD</b> | <b>50.45</b> | <b>50.09</b> | <b>50.79</b> | <b>0.70</b> | <b>0.86</b> |
| <b>전 세계</b>  | <b>98.34</b> | <b>96.50</b> | <b>97.62</b> | <b>1.12</b> | <b>1.59</b> |

### □ 세계 석유공급 (백만b/d)

|                | 2016년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증감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| 8월           | 9월           | 10월           | 전월대비        | 전년동월대비      |
| 미주             | 18.77        | 18.82        | 19.00         | 0.19        | -0.18       |
| 유럽             | 3.27         | 3.12         | 3.29          | 0.17        | 0.02        |
| 중동-아프리카        | 2.97         | 2.92         | 2.92          | 0.00        | 0.03        |
| 아시아            | 19.32        | 19.98        | 20.07         | 0.09        | 0.31        |
| NGLs           | 7.40         | 7.62         | 7.74          | 0.12        | 0.35        |
| refinery gains | 2.50         | 2.50         | 2.50          | 0.00        | 0.30        |
| <b>비OPEC</b>   | <b>57.24</b> | <b>58.33</b> | <b>58.92</b>  | <b>0.59</b> | <b>0.91</b> |
| 사우디            | 10.63        | 10.65        | 10.63         | -0.03       | 0.35        |
| 이란             | 3.68         | 3.71         | 3.84          | 0.14        | 0.92        |
| 이라크            | 4.48         | 4.49         | 4.59          | 0.10        | 0.59        |
| OPEC 원유        | 33.49        | 33.63        | 34.29         | 0.65        | 1.95        |
| NGLs           | 6.80         | 6.88         | 6.95          | 0.07        | 0.15        |
| <b>OPEC</b>    | <b>40.29</b> | <b>40.51</b> | <b>41.23</b>  | <b>0.72</b> | <b>2.10</b> |
| <b>전 세계</b>    | <b>97.52</b> | <b>98.84</b> | <b>100.15</b> | <b>1.30</b> | <b>3.01</b> |

### □ 대OPEC 원유수요 및 재고증감 (백만b/d)

|            | 2016년 |       |       | 증감  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           | 8월    | 9월    | 10월   | 전월대비 |
| 대OPEC 원유수요 | 34.30 | 31.29 | 31.76 | 0.47 |
| 세계 재고증감    | -0.81 | 2.34  | 2.53  | 0.19 |

자료: Energy Intelligence, Oil Market Intelligence 11월호, 2016. 11. 15